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2014년 9월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http://mssamok.cathms.kr>

허무한 인간

(집회 18,8-14)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14번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 1, 2절을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 예수님, 당신 자비에 의탁하나이다. 의탁하고자 하는 맘을 일으켜 주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집회서 18장 8절부터 14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18, 8 인간은 무엇인가, 무슨 가치가 있는가?
그의 선함은 무엇이고 악함은 무엇인가?
- 9 인간의 수명은 기껏 백 년이지만
영면의 시간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다.
- 10 바다의 물 한 방울과 모래 한 알처럼
인간의 수명은 영원의 날수 안에서 불과 몇 해일 뿐이다.
- 11 이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인내심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당신 자비를 쏟으신다.
- 12 그분께서는 그들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고 아시며
그런 까닭에 당신의 용서를 넘치도록 베푸신다.
- 13 인간의 자비는 제 이웃에게 미치지만
주님의 자비는 모든 생명체에게 미친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꾸짖고 훈육하고 가르치시며
목자처럼 당신 양 떼를 돌아오게 하신다.

- ¹⁴ 그분께서는 교훈을 받아들이는 이와
당신의 규정을 열심히 따르는 이들에게 자비를 보이신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인간은 무엇인가, 무슨 가치가 있는가? 그의 선함은 무엇이고 악함은 무엇인가?
- 주님의 자비는 모든 생명체에 미친다. 우리는 어떻게 형제를 자비롭게 대하고 있나요?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무슨 가치가 있는가?

그의 선함은 무엇이고, 악함은 무엇인가?(집회18,8)

옛날 교리문답에 ‘사람은 무엇하러 이 세상에 왔느냐?’ 라는 물음에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령하는 것’ 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선과 악의 문제는 하느님 안에서 온전히 이해됩니다. 결국 하느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더 데레사는 평생을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과 함께 보낸 후에 다음과 같은 통찰을 우리에게 소속감이라는 단어로 제시합니다.

“오늘날 가장 큰 재앙은 나병이나 결핵이 아니라 소속되지(소속감) 못했다는 느낌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 병은 유행병처럼 되었다. 우리는 소속되기를 애타게 열망하면서도 스스로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낀다.”

지금 우리는 가족 안에 소속되어 있고, 그 관계의 확장 안에서 직장과 다양한 모임을 통해 행복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와 의미는 지금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가치가 결정되어집니다. 곧 나와 나의 관계가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의 가장 큰 기준은 바로 '관계'의 풍요로움입니다. 최고 행복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혼자 있는 시간이 적었고,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현대의 많은 심리학 연구들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마더 데레사가 얘기한 것처럼 행복은 '어디서'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관계를 맺고 소속되어 있느냐의 문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비는 제 이웃에게 미치지만 주님의 자비는 모든 생명체에 미칩니다(집회18,13). 인간의 수명은 기껏 백 년이지만 영면의 시간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집회18,9). 인간의 시간은 한정되고 유한하기에 그보다 더 근원적인 관계의 원천인 하느님과 맞닿아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께 소속됨이 바로 행복의 원천인 것입니다. 하느님을 삶의 첫 자리에 두고 사는 삶의 도식을 만들어 갑시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이제 한 달간 삶속에서 되뇌이며 실천할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각자 맘 속으로 한구절 혹은 한 단어를 정하시겠습니다.

기타토의

진행자 우리 소공동체가 이달에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 공지.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14번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 3절을 노래하겠습니다.(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궁금했어요

차례나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일이 어긋나지 않지요?

우리 교회는 토속적인 문화와 신앙을 존중하고 그와 융합해서 참 하느님의 존재를 알리기 때문에 ‘조상을 위한 차례나 제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으로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는 살지 않으십니다. 또 무엇이 부족하기라도 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도 않으십니다.”(사도 17,24)라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인정하고 권하는 제사는, 조상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오늘의 후손들이 모여서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추모의식’입니다. 따라서 타 종교가 가진 제사의 예식에 따라 지방을 쓰고 제사가 끝난 후에 그것을 불에 태우는 행위 혹은 돌아가신 분이 그 자리에 와서 음식을 드신다는 미신에 따라 숟가락을 꽂아 놓는 등의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유교에서 비롯된 제사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일이나 뿌리를 알 수 없는 소위 ‘신위(神位)’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신앙인은 이러한 미신적인 행위에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느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우상숭배는 자칫 “정”이라는 이름으로 “관대해 보이려는” 자기사랑으로 범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복된 명절 보내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 가겠습니까?
(요한 6, 68)

완월성당 2구역장 김진옥 (크리스티나)

저희 2구역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의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닌 동네로, 몽고정과 마산중학교, 마산고등학교, 무학·완월 초등학교 등 많은 학교가 구역 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 년 전에 조성된 솔밭공원은 도심 속에서 보기 힘든 소나무 숲으로 우거진 공원으로써, 주택가 아주 좋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 때는 저희 2구역이 완월성당의 주춧돌 역할을 하며 많은 반원들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많은 신자들이 새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고 젊은 사람들은 직장에 나가게 되어 지금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과 구역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새기면서 전업교우, 신영세자, 예비신자 돌봄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반들이 모임 때마다 하느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이 생활 속에 깊숙이 작용하여 말씀과 함께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한평생 살아오신 삶을 나누고, 인생의 교훈이 되는 말들도 나누면서 서로



에게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구역원들은 지금까지 하느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았기에 힘든 세월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하느님은 언제나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시는 저희의 방패이십니다.

지난날 어르신들의 삶이 젊은층과 중간층인 저희들과 삶의 방식은 달라도 하느님 안에서 모두 하나이기에, 저희 2구역 모두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안에서 살기를 희망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도 저희의 몫인데 지금 이렇게 반원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마치 저희의 책임인 것 같아 마음이 다소 무겁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음 전파에 소홀히 한 탓은 없는지 반성해 봅니다.

앞으로는 ‘성당 내에서 뿐 만 아니라 이웃에게 관심을 두고 작은 사랑을 실천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 나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하여 저희 2구역은 모두 한 마음으로 일치하여,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완월성당 2구역 〉

시작성가

출석확인 및 인사나누기

1단계 주님을 초대한다.

“한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복음(말씀)을 읽는다.

“… 복음 …장을 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절부터 …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큰소리로,
세 번 선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4단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5단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6단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눈다.

“지난 주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이번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7단계 자유롭게 기도한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소공동체 기도 및 영광송